

땅 마련·투자 설득 동분서주 기업 유치 村老들이 해냈다

전남 5개 마을 '끝내주는 주민들' 신선한 충격

기업이 들어서려면 지역주민들이 갖가지 보상을 요구하며 브레이크를 걸던 일은 이전 옛날. 전남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는데 지역경제활성화의 '참병'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과거 환경파괴나 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공장 설립에 반대하거나 거액의 보상을 요구해 기업,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던 주민들이 이제는 기업을 직접 찾다니고, 공장부지까지 소개하는 등 기업유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영광군 묘량면 언당리에는 최근 공장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합성 목재 제조업체인 (주)이우드코리아(대표 이근식)로부터 18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농사만 짓던 마을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벌써 고용효과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오는 7월부터 가동될 (주)이우드코리아는 묘량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택에 이곳 2만㎡ 부지에 새 동자를 틀게 된 업체다.

이 업체는 애초 영광군 대마면 화평리를 투자 지역으로 선택하고 부지 매입 등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부지 매입 가격이 높고 개발행위에 따른 공사일정 지연으로 매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묘량면 투자유치위원회(위원장)는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재경 향우회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9월 25일 대표를 직접 만났고, 부지매입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때부터 위원회 위원들의 발걸음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공장부지 예정지의 토지 매매계약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자녀를 찾아 한 개팀은 경기도 고양으로, 한 개팀은 광주

시로 달려갔다.

주민들은 토지소유자를 설득해 3일 만에 모든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기적(?)을 이뤄냈다. 하지만, 공장 예정부지 내에 있는 묘지 3기가 또 다시 문제가 됐다. 이번에는 묘지 관리자를 만났다. 보름여 만에 협의 끝에 묘지 이장 합의를 이끌어내고 결국 180억원이라는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토지매입에서 인·허가까지의 과정이 3개월 만에 모두 끝난 셈이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영광군 묘량면은 전남도로부터 투자유치 성과금 1천만원을 받았다.

기업도 주민들의 노력 못지 않게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주)이우드코리아의 이근식 대표는 토지 매입이 끝난 뒤 마을 이장단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주민 설명회를

하고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또 고향은 아니지만, 재경 묘량면 향우회에도 참석해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소견을 발표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임교택 묘량발전협의회장은 "주민들이 고용효과 등에 벌써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경 향우회를 통한 투자유치에 지역민들이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영광군 묘량면 투자유치위원회 이외에도 담양 대덕면·장성동화면·곡성 삼기면·장흥 부산면 투자유치위원회가 4개 기업으로부터 총 365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현재 전남도 내 22개 시·군 각 읍·면·동에는 총 286개의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중이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화순군 '비리 복마전'

화순군 안팎의 각종 비리에 전 전남도 부지사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이 연루되는 등 공사 인·허가나 수의계약,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과정 등이 '비리 복마전'이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기사 6면>

특히 화순군은 현 군수의 친형 전모(65)씨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경

이 동시에 수사를 펴고 있는 데다 군정 비리 전반에 걸쳐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9일 화순군의 국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의계약 발주,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전 전남도 부지사 손모(67)씨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알선수재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전남도 부지사 손씨와 전 화순군 부군수 최모(60)씨, 안모(55·56)씨는 2005년과 2006년 무자격 업체에게 국가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도록 돕고 여대의 LPG 충전소와 주유소 부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직권을 남용해 무자격·부적격 건설업자 등에게 수의계약을 남발한 화순군 계약담당 공무원 권모

인허가·수의계약 등 뒷돈
전·현직 공무원 12명 입건



F1 그랑프리 BI 발표

2010년부터 영암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틀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공식 BI (Brand Identity)가 발표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는 19일 대회 공식 BI를 발표하며 "적색과 흑색을 기본으로 하고 'F1 KOREAN GRAND PRIX 2010'이라는 글자 오른쪽 상단에 F1 머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엮는 모양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54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호남 예술제

집수·음악·무용·극악 (4월 2일(목)~ 7일(목))
미술·학문 (5월 4일(월)~ 11일(월))

전라북도 문화재단 주최, 호남예술제 기획하는 2009년 4월 2일부터 7일까지 영암시 영암문화체육센터, 호남과학대학교 등에서 열립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체육부, 기획: 전라북도 문화재단, 후원: 전라북도 문화재단, 전라북도 문화재단, 전라북도 문화재단, 전라북도 문화재단)

▶ 행사기간: 4월 2일(목)~ 7일(목) / 5월 4일(월)~ 11일(월)

▶ 행사장소: 전라북도 문화재단, 호남과학대학교, 호남문화체육센터, 호남문화체육센터, 호남문화체육센터, 호남문화체육센터

▶ 문의처: 전라북도 문화재단, 호남문화체육센터, 호남문화체육센터, 호남문화체육센터

▶ 후원: 문화·체육·관광·체육부, 전라북도 문화재단, 전라북도 문화재단, 전라북도 문화재단, 전라북도 문화재단

90% 분양률

상무지구 최고의 중심 상권! 22층 최고의 동양빌딩!

병원,상가 잔여분 선착순 임대

동양건설

062-385-7777, 373-6990